

# 872억의 사나이... 김민재, 맨유로 가나

### 외신들 "맨유가 영입 전쟁서 이길 전망"... 계약 임박 보도 박지성 이은 '코리안 맨유맨' 예약... 첼시·리버풀도 군침

올 시즌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챔피언인 나폴리의 '통곡의 벽' 김민재가 영국 땅을 밟으려나. 나폴리 중앙 수비수인 김민재의 새로운 동지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로 좁혀지는 모양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은 1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매체인 일 마티노를 인용해 "맨유가 나폴리 중앙 수비수 김민재와의 계약에 임박했다"며 "김민재가 뛰어난 활약을 펼친 덕분에 나폴리가 33년 만에 세리에A에서 우승했다. 김민재를 향한 (구단들의) 큰 관심을 끌어냈다. 맨유가 영입 경쟁에서 이길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민재의 예상 이적료는 5200만 파운드(약 872억 원)에 달한다.

2022카타르 월드컵 국가대표인 김민재는 2021년 8월 튀르키예 리그 페네르바체 SK를 거쳐 지난해 7월 나폴리로 이적했다. 또 1년 만에 축구의 본 고장인 EPL로 이적하게 되는 셈이다.

데일리 메일은 "김민재는 작년 여름 페네르바체를 떠나 약 1500만 파운드의 이적료로 나폴리에 왔다. 나폴리도 이번 이적이 성사되면 큰 이적료 이익을 얻는다. 김민재

의 바이아웃 금액은 4400만~5200만 파운드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즌 나폴리에서 보여준 김민재의 활약에 맨유 뿐만 아니라 첼시, 리버풀, 토트넘(이상 잉글랜드), 파리 생제르맹(프랑스) 등이 영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190cm, 87kg으로 단단한 체격을 갖춘 김민재는 이번 시즌 나폴리에서 공식전 43경기(정규리그 33경기 포함)를 치르는 동안 2골 2도움을 기록했다. 수비수인 김민재에게는 공격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다. 김민재가 출전한 세리에A 경기에서 나폴리는 클린 시트(무실점)를 15경기나 달성했다. 이런 가운데 수비진 강화가 절실한 맨유가 가장 적극적으로 김민재 영입에 나선 상태다. 맨유는 2023~2024 시즌을 준비하면서 중앙 수비수 보강에 집중하고 있다.

영국 매체 팀포트는 "맨유가 새 중앙 수비수 옵션으로 김민재를 선택하면 해리 매과 이어와 빅토르 린델로프가 이적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적이 성사되면 김민재는 박지성 전복 현대 테크니컬 디렉터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두 번째로 맨유의 유니폼을 입게 된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이탈리아 세리에A 챔피언에 오른 나폴리의 수비수 김민재가 팬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나폴리 EPA-ANSA-연합뉴스

##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 PGA챔피언십 18일 개막

### 조던 스피스 '커리어 그랜드 슬램' 도전... 불꽃 경쟁 주목



남자 골프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미국프로골프협회(PGA) 챔피언십이 18일(한국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의 오크힐 컨트리클럽(파70·7394야드)에서 열린다. 4월 마스터스에 이어 또 한 명의 메이저 챔피언을 배출하게 될 이번 대회에는 156명의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해 우승 경쟁을 벌인다.

대회 총상금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는 총상금 1500만 달러, 우승상금 270만 달러(약 36억1000만 원)였다.

우승자에게 주는 워너메이커 트로피는 디오픈 챔피언이 받는 클라레 저그와 함께 유명한 골프 메이저 대회 우승 트로피로 꼽힌다.

마스터스에서 팬들의 관심을 끌었던 PGA 투어 선수들과 LIV 시리즈 선수들의 자존심 대결이 PGA 챔피언십에서도 관전 포인트다. 올해 PGA 챔피언십에 출전하는 선수 가운데 LIV 소속은 18명이다.

4월 마스터스에서는 대회 마지막 날 PGA 투어의 온 램(스페인)과 LIV 소속인 브룩스 켈카(미국)가 우승 경쟁을 벌인 끝에 램이 그린 재킷의 주인공이 됐다. 지난



2022 PGA 챔피언십 우승자인 저스틴 토마스. AFP-연합뉴스

해 6월 출범한 LIV 선수가 이후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사례는 아직 없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발목 수

술을 받아 불참하는 가운데 역시 세계 랭킹 1~3위인 램과 스코티 셰플러(미국),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의 우승 경쟁이 예상된다. 램이 우승하면 2021년 US오픈과 올해 마스터스에 이어 4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3개 대회 정상에 서게 된다. 작년 우승자 저스틴 토마스(미국) 역시 2017년을 포함해 PGA 챔피언십 3회 우승을 노린다. 조던 스피스(미국)는 이 대회에서만 우승하면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할 수 있다.

한국 선수들도 2009년 양용은에 이어 두 번째 메이저 챔피언에 도전한다. 한국 선수로는 임성재, 김시우 외에 김주형, 이경훈이 출전한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 괴물 류현진, 7월 복귀설 '솔솔'

### 앳킨스 토론토 단장 "6월 타자 상대로 실전 투구"

부상에 신음중인 '한국 야구 영웅'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의 7월 복귀가 가시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류현진에게 올해는 블루제이스와 계약 마지막 해다. 반등하지 못하면 메이저리그를 떠날 수도 있다. 로스 앳킨스 블루제이스 단장은 16일(한국시간) 캐나다 매체에 "류가 불펜 피칭을 하고 있다"며 "다음달에는 타자를 상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왼손투수 류현진은 플로리다주 더니든에 있는 구단 훈련 시설에서 재활에 매진 중이다. 그는 지난해 6월 왼쪽 팔꿈치 인대를 재건하는 일명 '토미 존' 수술로 일찍 시즌 아웃했다.

구단에 따르면 불펜 투구 단계를 거쳐 타자를 세워놓고 투구하는 라이브 피칭 훈련을 한 뒤 실전 투입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미 프로 야구 올스타 휴식기 직후인 7월 말 복귀가 유력하다.

2013시즌부터 LAD저스에서 뛰다 2020 시즌을 앞두고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었던 류현진은 한국야구를 대표하는 메이저리그 초특급 투수로서 위상이 날랐다. 하지만 이후 3시즌 동안 49경기에 등판, 21승12패(평균자책점 4.07)를 기록하며 명성과 기대에 못 미쳐 평판이 추락한 상태다. 임한성 기자 hsrin@skyedaily.com

## WANNA RISE?

ALCOBAÇA Stream  
DOUBLE WAVE

## WANNA SPIN?

Ray SX-ZERO

RomaRo

(주)유니스골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89-5 인스코빌딩 문의전화 031)726-0085